

“ 위로하라 내 백성을! ”

■ 이종윤 원로목사

선지자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한다. 이사야 때나 바벨론 포로기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버리시거나 고통 중에 있게 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라 외쳤다. 선지자의 과업은 백성을 책망만 한 것이 아니고 감화 감동적인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고 진노의 지팡이를 드시어 죄인들을 때리시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엔 위로와 소망도 주신다.

혼돈된 이 사회를 말씀으로 재창조해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영적 영역을 책임진 교회가 혼돈에서 헤매이고 있다. 백성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선 죄를 없애야 하고 그 다음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며 죄값대로 처치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백성에게 영적 안위와 위로가 임한다. 이 같은 위로는 죽은 조상이나 우상이 줄 수 없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대속자로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받게 된다. 그의 구원의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다시 창조되어야 한다.

메시아를 모신 자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골짜기 같은 음흉하고 거짓된 마음이 사라지고 산과 언덕같이 교만한 마음이 낮춰진다. 정치권의 여야가 당리당략에 치우쳐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야 기쁨이 심한 감정도 정리되고 모든 험한 곳 같은 강박한 심성도 퍼진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를 모신 자에게 참 위로와 평안이 임한다.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것 육체의 소욕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영구하지 못하다. 그러나 메시아를 모시면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은 사함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풀과 꽃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다.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보라. 유대인을 애굽과 바벨론에서 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다. 우리 백성을 일제 36년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6·25의 폐허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라.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의 팔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매우 큰 상급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이는 보응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목자같이

하나님은 양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목자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 인도, 인내, 은혜, 애착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지혜, 위대하심은 어느 우상이나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창조주 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해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를 그에게 맡기는 이에게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니 독수리처럼 비상 고공을 하며 승리와 희락을 맛보는 위로를 체험케 된다.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을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참 위로를 받게 하자.

-한국장로신문 [제 1383호] 2013년 9월 21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정부와 총회의 예배 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부득이 이번 주일에는 지난 3월과 같이 교회에서의 예배 대신 주일 1부 예배시간에 당회원과 직원 등 온라인 예배에 필요한 소수의 인원만 모여 드리는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자 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여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 사정상 1부 실시간 영상예배에 접속하지 못하신 분은 2부나 3부 또는 편리한 시간에 아래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시면 그대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교회학교 예배와 찬양예배 및 새벽기도회는 종전과 같이 진행됩니다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경건성을 꼭 지켜주시고 아울러 온종일 주일성수의 거룩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야),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지흐스탄), 이경연,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기회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형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혜(케냐), 김종일(박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병성(총회), / 이삭, 비스파, 사지, 에녹(인도), 스토르투바로이, 필리몬, 프란시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사누뵤도, 보디소프, 린롬, 수린준(벵골 라티사)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민(홍성인(필리우),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현(미다카스카르)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

■ 갈 4:28-5:1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75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맞아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1. 참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는 육적인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매우 정확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인간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여기는 이 덕목은 무수한 피 흘림의 땀밭에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은 진정한 자유인이었지만 인간은 스스로 이 자유를 곧장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목에 드리운 죄의 멍에를 퇴치할 수 있는가? 그 답을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로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 마귀에게 예속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이집트 땅에서 300년이 넘도록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심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도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철저하게 이집트인들의 권세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검탈을 해도, 살인을 해도, 강도짓을 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도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얻은 자유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해방도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를 무한히 긍휼히 여기시는 참 자유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죄만 지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2.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를 지킬 책임은 성도 개인에게 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쟁취할 수 없었던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게 된 이 자유를 말살하려는 악의 세력들의 교활한 활동에 의하여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는 형국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도 개인이나 우리 민족이나 참 자유를 지키고 누리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굳건히 지켜가기 위해서는 종의 멍에를 메게 하는 그 어떤 획책도 단호히 거부하고 자유를 수호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굳세게 서라”(stand fast)고 말씀합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 놓으신 그 반석,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길입니다.

맺는 말

참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법은 명백하게 죄와 멍에를 뒤집어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누리는 자유입니다. “굳세게 서라”는 말씀은 힘써 지켜야 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노예입니까? 돈과 권력과 직장을 보장한다고 해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돈 문제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자들은 다 우리를 돈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게 하는 것은 무엇든지 뿌리치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는 것들을 붙잡으십시오. 참 신앙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동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가 진정한 핵우산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11시20분	인터넷 영상	
III 오후 2시	인터넷 영상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21: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9(시 3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80(101)...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3:10-1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하나님의 집과 식구들...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208(246)...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전 3:15)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48:1-2 인 도 자
 찬 송 340(366)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수 5:10-15 인 도 자
 설 교 “신을 벗으라” 인터넷 영상
 찬 송 420(212)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
 설 교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장 례

- 故 송정옥 권사 (13교구 신재근 집사 모친, 김경자 집사 시모) / 21일(금) 별세, 23일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416명	223명	1,639명	1,752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8/16)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8월16일	헌 금	21,164,000	
	교회학교운영비		150,000
	출 판 비		210,000
	복리후생비		129,900
	통 신 비		166,630
	차량유지비		113,000
	소모품비		321,210
	환경유지비		70,000
	식당운영비		420,630
	합 계	21,164,000	1,581,37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